

쓰치자키 미나토 히키야마 축제

쓰치자키 미나토 히키야마 축제는 현지 주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연중행사입니다. 이 시기에는 쓰치자키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와 축제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데, 새해 연휴보다 더 많이 모일 정도입니다. 이 축제는 7월 1일 정식으로 시작하며 쓰치자키 신메이샤 신사에서 신을 기립니다. 축제의 중심인 7월 20일과 21일에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 단위로 히키야마라고 불리는 목재 장식 수레를 끌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히키야마의 대략적인 크기는 높이 5m, 무게는 3~4 톤가량입니다. 수레의 앞면에는 역사상 유명한 무장을 본뜬 큰 인형으로 재현한 역사적 명장면이 연출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지붕이 달린 무대가 있어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연주자들이 전통음악을 연주합니다. 무대 위에는 재미있는 시가 새겨진 목판과 작은 피규어(현대 정치가나 유명인인 경우가 많습니다)가 놓여 있는 등 사회문제를 풍자합니다. 장식은 매년 새로 만들어 신사의 신들에게 바칩니다.

히키야마의 무게를 생각하면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히키야마에는 급정지하기 위한 브레이크나 방향 전환을 위한 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키야마를 끄는 팀은 유연한 나무 막대기를 사용해 히키야마를 수동으로 유도합니다. 막대기를 바퀴 밑에 끼움으로써 히키야마의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식입니다. 목재 바퀴는 높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데, 이것이 축제의 상징적인 소리가 되었습니다. 퍼레이드 중 수레바퀴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름을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쓰치자키 축제에 미코시(축제 때 신령을 모시는 가마)가 등장한 것은 1705년이지만, 히키야마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1789년에 쓰인 여행일기입니다. 상인이자 학자였던 쓰무라 소안(1736~1806)은 일기에서 거리가 40개의 야마(신사를 본떠 만든 수레)로 가득 찼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키야마는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1831~1904)의 눈길을 끌었고, 그녀는 1880년에 출판된 저서 「일본 오지 기행」에서 이 축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쓰치자키 미나토 히키야마 축제는 긴 역사와 현지에서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아 1997년 일본의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